

韓中 불자 청년 수행으로 '하나'

부산 보리선수, 2013 한·중 국제청년법회 개최



부산보리선수에서 개최된 '2013년 국제 청년 법회'에서 한국 B-boy들에게 중국 청년들이 춤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다.

부산 보리선수(주지 범생)는 설을 맞아 한·중 청년 교류를 위한 '2013 국제청년법회'를 개최했다. 2013년 2월 6일~2월 12일 부산 해운대 보리선수 법당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중 청년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행, 단체토론, 설날 파티, 가면무도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오체투지와 대광명 수행 체험 '리더십 훈련'도 호응 높아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7일간 열린 국제청년법회는 수행과 리더십교육 그리고 청년들의 국제적 교류 등으로 구성됐다. 그 중 가장 핵심프로그램이 바로 수행이다. 참가자들은 오체투지와 대광명 수행법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심과 지혜를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티베트 불교의 색채가 묻어나는 음악속에 전

행대 참가자들의 흥미를 고취시켰다. 수행 시간은 하루 2시간 정도였지만 수행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어느 수행자들 못지 않게 진지했다. 특히, 대광명 수행법은 음악에 맞춰 고요히 몸을 움직이는 명상수련법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보리선수에서 개발한 현대적 수행법이다.

리더십훈련 역시 학생들에게 호응이 컸다. 10명이 한 팀을 구성 팀별 토론과 발표를 통해 소통과 강연능력을 배양하고, 조직계획능력, 창조능력, 단체협조능력 등 사회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 교육들로 진행됐다. 참가자 김하영 씨는 "팀별 토론과 스피치에 임하는 중국 청년들의 태도가 너무도 진지해 큰 감명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역시 청년법회에 빠질 수 없는 행사는 축제다. 설날파티와 가장무도회는 청년들의 마음을 가장 쉽게 여는 행사였다. 팀별로 준비한 즉석 만담, 단막극, 악기연주, 노래와 춤은 소통이 되지 않는 한·중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 유쾌한 시간이었다. 중국 교포 김희진 씨는 "너무 재미있어요. 여기 설날 축제는 중국 중앙 방송국 특집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다. 참가한 젊은이들은 정말 재주가 많아요. 한국 B-boy팀의 초청공연과 가장무도회 시간은 제게 잊지 못할 멋진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불법의 자비로운 빛이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들을 여기에 모이게 한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故 강석진 회장에 박사학위 추서

동명대에서 수여식 진행

일반종합대학으로서는 처음 불교문화학과를 개설한 동명대학교(총장 설동근)는 2월 15일 학위수여식에서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설립자이자 옛 부산의 세계적 향토기업 동명목재 회장 강석진 회장에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故 강석진 회장은 부산의 대표적 재가신학단체인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신심깊은 불자였다. 그는 우리나라 1960년대와 70년대 산업화시대 국가 수출과 근대화 등에 크게 기여했으며, 단일 업종으로는 세계최대 규모의 동명목재를 경영해 국가 위상을 높였고, 1967년부터 1974까지 8년간 대한민국 납세왕, 1968년에서 1971년까지 4년 연속



동명대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 장면. 설동근 총장이 강석진 회장의 손자 강경도 씨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민국 수출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BBS회관을 건립, BBS운동을 통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큰 나눔을 일평생 실천했고, 1977년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을 설립, 동원공업전문대학(현 동명대학교)을 개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은혜사, 템플스테이교육관 상량식

조계종제 10교구본사 영천 은혜사는 2월 12일 템플스테이교육관 대법륜전 상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각원 법타스님, 조실 해인 스님, 중앙박물관장 원학스님, 돈명 스님, 돈관 스님 외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영천 은혜사 템플스테이교육관 상량식 장면

은혜사 대법륜전은 연면적 1513평이며, 건축 총면적은 655평(1층 390평, 2층 265평)으로 1층에는 방, VIP 방, 휴게실, 강의실, 사무실, 방송실, 화장실, 샤워실, 다용도실로 구성됐다. 2층은 설립전으로 1천여 명이 동시 법회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

어 있다. 각종 시설은 180여명이 동시 수용해 템플스테이 및 연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물은 자연 그대로 흐르게 하자

일본의 이름 있는 고찰에 가면 일본 고유의 양식으로 만들어진 정원을 볼 수가 있다. 일본정원은 못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리미즈(瀧水)라고 하는 구불구불한 물길을 만들어서 멀리 있는 물을 못으로 끌어온다. 바로 이 아리미즈 때문에 일본사찰에서는 항상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 사찰은 경역 내에 인공적으로 물길을 만들어 물을 흐르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사찰주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계류가 있고, 사찰내부에도 작은 수로가 흐르는 경우가 많아 굳이 물길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자

연수로에 손을 대왔다. 사찰에서도 치수와 이수를 위해 사찰 내·외부의 물길에 손을 대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사찰에서의 치수는 홍수피해가 없도록 계류주변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석축을 하는 것이었고, 이수는 계류에 있던 돌로 보를 쌓아 확보한 작은 양의 물을 이용하는 정도였지 물길의 구조를 달리 하거나 수로단면을 변경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사찰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자연적으로 흐르던 물길을 아예 없애거나 물길을 바꾸어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를 여러 사찰에서 볼 수가 있다. 또한 물길을 바꾸지는 않지만 흐름이 오래되어 아

름담이 그지없었던 수로에 콘크리트를 바르거나 발파석을 열기설기 쌓아 현상을 변경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본 사찰에서는 인공적으로 물길을 만들어 자연을 도입하고 사시사철 물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불자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천연적으로 형성된 물길까지도 훼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사찰은 단순히 불교적 신앙생활을 위한 종교적 기능만을 담은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이 가진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찰이 가진 자연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물길의 보존은 매우 중요한데,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로는 한번 훼손될 경우 다시는 원상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연의 생태적 복원능력이라는 것이 항상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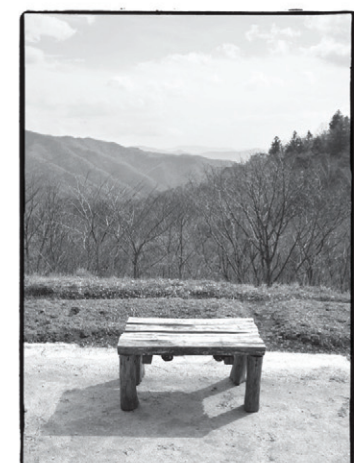


자연수로의 현상을 변경하는 일은 사찰의 자연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경기도 8사찰

공부하다 죽어라

혜암스님의 벼락같은 화두 정찬주 지음

성철스님 이야기 『자기를 속이지 말라』 범정스님 이야기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에 이어 혜암스님이 정진했던 암자를 따라가며 써내려간 이야기가 담긴 또 하나의 산문집!



학생은 무아를 느낄 때까지 즐겁게 공부해야 하고, 직장인은 조직 속에서 무아를 경험할 만큼 나를 비워야 하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 역시 나를 버리는 무아 상태에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늙은 쥐가 싹개를 한 구멍만 뚫듯 해야 합니다. 미련한 쥐나 어린 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싹개를 뚫을 적에 이쪽에 뚫었다 저쪽에 뚫었다 하는데 늙은 쥐는 싹개를 많이 뚫어봤기 때문에 싹이 나오든 말든 죽어라고 한 구멍만 뚫습니다. 화두 공부도 늙은 쥐가 싹개 뚫듯이 해야 도가 깨달아집니다. —혜암스님 어록 중에서

혜암스님은 1920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46년 해인사에서 인공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효봉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았다. 승가와 재가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하다 죽어라'라고 서툰말같이 독려하던 스님의 생애는 끝없는 정진뿐이었다. 해인사로 출가한 27세부터 밤바닥에 눕지 않는 정적분과 수행과 하루 한 끼만 먹는 밀종식을 평생 동안 지켰다. 스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으로서 성철스님 이후에는 종단개혁에 앞장섰다. 해인총림 방장,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등을 거쳐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됐으며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월당암 미소굴에서 법랍 56세, 세수 82세로 영면했다.

신간

그대가. 지금. 하는 일이. 공부다.

공부하다 죽어라

혜암스님의 벼락같은 화두

정찬주 지음